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

-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의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여부를 중심으로* -

김동민**·정석***

An Analysis of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Maeul Activists*

- Focused on the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and Duration of Activities in Seoul from 2012 to 2016 -

Dong Min Kim**·Seok Jeong***

요약 : 2012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공무원과 주민의 관계를 연결하고 주민참여 활동을 돕는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마을활동가를 다루는 연구와 직업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150명의 직업특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활동가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전문 지식과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에 필요한 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직업분류상 전문가와 관련종사자 직업군으로 분류된다. 둘째, 마을활동가의 52.1%가 활동중단 경험이 있고, 37.2%는 아예 활동을 중단했으며, 이 가운데 14.9%가 활동을 재개하였다. 셋째, 마을활동가의 평균 연봉은 846만 4천 원으로 2017년도 근로자 평균급여의 1/4 수준으로 적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마을활동가의 신규 양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활동했던 마을활동가의 처우개선 등 활동 지속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주제어 : 마을활동가, 직업적 특성, 직업분류, 활동 지속 여부

ABSTRACT :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Maeul Activists should be prioritized in order to improve the conditions of the activity suitable for the Maeul Activist. However, research on Maeul Activists a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is lacking. This study analyzed the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eul Activists focusing on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duration of activities. The analysis target is 150 Maeul Activists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term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from 2012 to 2016.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of Maeul Activists as follows. First, the Maeul Activists are classified as professionals in the field of Maeul-Mandeulgi and are experts in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with full knowledge of the Maeul Community and have the ability to communicate with participants. Second, 52.1% of Maeul Activists have experience of discontinued activities, and 37.2% stopped activities and 14.9% resumed activities. Third, the average number of continuous service year of Maeul Activists, who did not stop their activities, is about 3.2 years twice as long as discontinued activities. Fourth, the average annual salary of Maeul Activists is 8,464,000 won, which is about 1/4 of the average salary of 2017 workers in Korea. Considering the analysis results, it is no less important to come up with a plan to sustain the Maeul Activists,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who are already active, than to cultivate a new Maeul Activists in the second-term Community Support Program in Seoul.

KeyWords : Maeul Activists, Occupational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uration of Activities

* 이 연구는 김동민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보완한 논문입니다.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박사과정(Ph. D. Student,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University of Seoul)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Professor, Department of Urban Planning and Design, University of Seoul),
교신처(E-mail: jerome363@uos.ac.kr, Tel: 02-6490-2807)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다. 마을공동체 정책에는 주민과 마을활동가 그리고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마을활동가는 여러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을 돕고 각종 교육과 상담을 한다. 마을활동가가 마을공동체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2012)에서도 ‘사람들의 인적 관계망인 마을에서 굶은일을 도맡아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이어주는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마을의 역사는 (중략) 이 모든 일을 발 벗고 나선 마을활동가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며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마을공동체의 형성과 유지를 위해서는 마을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마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서울시 마을활동가 관련 주요 쟁점¹⁾의 하나이다.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2015)(이하 어젠다 연구)에 따르면 마을활동가의 경제적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마을활동을 전문 직업으로 여기는 마을활동가도 마을활동이 아닌 다른 활동으로 생계와 활동 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마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로도 제시되었지만 마을활동가를 소재로 다른 연구는 찾기 어렵다(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

터·서울연구원, 2015).

마을활동가에게 알맞은 활동 지속 방안을 마련하려면 받고 있는 대우, 활동 지속 동기 그리고 중단 이유 등이 파악되어야 한다. 즉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 여부’라는 직업적 관점에서 마을활동가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내용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인 서울시의 마을공동체 정책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년 제정)를 근거로 수립된 5년 단위 계획이다.

안현찬·구아영(2017)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진행된 마을공동체 정책 중 사용된 예산과 참여자 인원을 고려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²⁾’(이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다.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는 여러 유형의 마을활동가가 참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가운데 역할과 범위가 명확한 9개 활동 유형을 대상으로 직업 특성을 파악하였다.

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되어야 하는 점에 따라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마을공동체 정책이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로 설정하였다. 이 연

1) 서울시 마을활동가 관련 주요 쟁점은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에 관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와 서울연구원에서 진행한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2015)로 파악하였다.

2) 안현찬·구아영(2017)에 따르면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은 담당부서인 지역공동체담당관이 전담하는 단일사업이 아닌, 여러 사업부서가 각자 추진하는 사업까지 통틀어 부르는 것으로 2016년 기준, 서울시 11개 부서(과급)와 25개 자치구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에서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를 의미한다.

II. 이론적 고찰

1. 마을활동가의 개념

마을활동가의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지 않다³⁾. 마을활동가를 부르는 명칭은 지방자치단체별, 사업별로 다양하다⁴⁾. 이러한 현상은 마을 만들기 운동 자체가 국가 주도의 정책적·제도적 사업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각자의 상황에 적합한 형태로 만들어나가는 자생적·창의적 지역사회 운동에 기인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여겨진다(황규홍, 2016).

정석 외(2017)에 따르면 마을활동가는 자발적으로 마을활동을 하는 동시에 다른 주민의 마을활동을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서울시의 마을활동가 관련 명칭⁵⁾은 활동가, 코디네이터, 리더, 상담원, 강사 등 30개 이상이다. 서울시 외 다른 지역을 조사해보면, 부산시는 마을활동가 관련 명칭을 마을코디와 마을계획가 등으로 부른다. 안산시의 마을닥터와 진안군의 마을간사라는 명칭도 있다.

1) 마을활동가의 사전적 의미

마을활동가는 ‘마을’과 ‘활동가’ 두 가지 명사의 합성어다. 각 단어의 사전적 의미에서 마을활동가의 개념을 유추할 수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마을⁶⁾은 주로 시골에서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과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고, 활동가는 어떤 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힘쓰는 사람이다. 사전적 정의로 살펴본 마을활동가란, 여러 집이 모여 사는 곳에서 어떤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주체다. 마을의 사전적 정의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역할과 공간적 활동 범위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의 역할은 이웃에 놀러 다니는 일이다. 이는 소통과 교류로 볼 수 있다. 공간적 활동 범위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과 이웃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표 1〉 사전적 정의로 파악한 마을활동가의 개념

의미	마을에서 어떤 성과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
역할	이웃과의 소통·교류
공간적 활동 범위	자신의 거주지, 이웃 지역

2) 마을활동가의 등장과 성장

마을이라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안에서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익을 위해 적극적 활동을 하는 사람은 특정 사건이나 사업을 계기로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시기에 등장한 것으

3)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제정)의 제2조(정의)에도 마을활동가의 정의는 없다.

4) 마을 만들기 조례는 공통적으로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수립과 위원회, 주민협의회, 중간지원조직, 사업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중에 사업에 참여하는 활동가에 대한 규정은 합의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김홍주, 2014).

5) 서울시 마을활동가 관련 명칭에 사용된 고유명사는 31개로 활동가, 코디네이터, 리더 등의 순으로 사용되고 있다(정석 외, 2017).

6)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2012 제정)에서는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의미한다.

로 보인다.

1999년은 주민이 스스로 나서서 일상 생활환경의 문제를 풀거나 개선하려는 활동이 눈에 띄게 늘어난 한 해였다(정석, 1999). 이런 움직임은 단독주택가나 아파트단지 같은 주거지역에서만 아니라 상점가나 도심부 할 것 없이 전국 곳곳에서 포착되었다(정석, 1999). 보행환경 개선과 골목길 가꾸기 그리고 공공공간 조성 등 주민 생활 여건 향상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마을 만들기⁷⁾가 사회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등장한 활동주체가 마을활동가의 시초일 수 있다. 마을정책 분야의 전문 활동인력으로서 마을활동가라는 명칭은 2000년대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윤혜영, 2015).

마을활동가는 지역 주민과 소통하면서 물리적·비물리적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마을단위 사업인 마을 만들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06년 정부에서 추진한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 사업의 영향으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전국에서 주요사업으로 인식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간지원조직이 등장했다. 예를 들어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관심이 있는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산시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지속적으로 안산시장에게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 결과, 2008년 ‘안산시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후 인천시, 수원시, 부산시, 진안군 등에서 설립된 마을 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마

을활동가 교육과 관리 같은 지원을 담당하면서 마을활동가의 성장을 돕고 있다.

서울시 마을활동가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시행 전부터 지역에서 공익을 추구하는 활동을 했기 때문에 등장 시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풀뿌리활동가가 있다. 주민이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경험하며 마을활동가가 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도 마을활동가는 마을 현장에서 활동하며 쌓이는 경험과 중간지원조직의 교육·지원으로 퍼실리테이터와 마을실무자 등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인적자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2. 선행연구 검토

1) 마을활동가 관련 선행연구

마을활동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마을 만들기를 다룬 연구는 1990년대 후반부에 시작되어 2005년까지 매해 평균 1.5편으로 큰 증감 없이 지속되었고, 2007년과 2011년을 기준으로 크게 증가하였다(정석·김택규, 2015).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에서 실제 마을 만들기에 참여하고 있는 인적자원인 활동가를 연구한 논문은 매우 드물다(김홍주, 2014).

연구 시점인 2018년을 기준으로 마을활동가를 연구소재로 다룬 연구는 김홍주(2014), 황규홍(2016), 지혜연(2017), 최우혁(2017)을 제외하면 많지 않다.⁸⁾

김홍주(2014)는 주민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조

7) 일본은 1980년대부터 법정 도시계획사업의 대안으로 주민중심의 마을활동이 크게 부상하였고 이를 ‘마치즈쿠리’라고 불렀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이 소개되면서 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보편화되었다. 비록 용어는 일본의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우리사회 나름의 마을 만들기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박세훈·임상연, 2014: 38).

8) 마을활동가를 직접 다루지는 않았지만 마을 주체에 관한 연구는 안현찬·박소현(2012), 최희영·이희정(2014) 등이 있다. 안현찬·박소현은 마을 만들기 관점에서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사례를 검토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조직의 역할을 정리하였고, 최희영·이희정은 성대골마을과 삼각산 재미난마을 사례를 검토하여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이 주목할 만큼 확대되는 중이라고 하였다.

력자로서 마을활동가를 바라보며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에서 명명하는 활동가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과 주민의 연결고리인 활동가에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 이들에 관한 규정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황규홍(2016)은 주민이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가 지속하려면 마을활동가의 역할이 핵심적이라고 주장하였고, 마을활동가를 활동 내용에 따라 이념실천가, 조직실무자, 마을교육가, 마을기획가로 분류하였다. 지혜연(2017)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참여주체로 마을활동가를 바라보며 역량 수준을 분석하였다. 최우혁(2017)은 마을 만들기의 참여주체를 역할별로 분류하고 역할 중요도를 분석하여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수법을 제안하였다.

마을활동가를 소재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는 주민의 마을 활동을 도우며 마을 만들기를 지속하고 관련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표 2) 참고).

마을활동가 관련 선행연구는 마을 만들기의 참여주체 가운데 하나로 마을활동가를 인식하며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파악하거나 역량수준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직업적 관점에서 마을활동가를 바라보며 특성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표 2〉 선행연구로 파악한 마을활동가의 개념

의미	역할
마을 만들기가 지속되고 관련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적 자원	주민 참여 독려, 주민 역량 강화 지원, 참여주체 간 연결고리 등

〈표 3〉 마을활동가 관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구분	연구 관점	연구 내용
김홍주 (2014)	주민 역량을 강화시켜줄 조력자로서 마을활동가를 바라봄	마을 만들기 관련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활동가와 중간지원조직에서 명명하는 활동가로 마을활동가를 구분함
황규홍 (2016)	주민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는 주체로 마을활동가를 바라봄	문헌을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역할정체성을 이념실천가, 조직실무자, 마을교육가, 마을기획가로 정리함
지혜연 (2017)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정책 목표달성을 위한 참여주체로 마을활동가를 바라봄	마을활동가의 역량모델을 개발하고 역량 수준을 분석함
최우혁 (2017)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주체가 아닌 간접주체로 마을활동가를 바라봄	마을 만들기의 참여주체를 역할별로 분류하고 마을활동가의 역할을 설명함
이 연구	직업적 관점에서 마을활동가를 바라봄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함

2) 직업 특성을 분석한 연구

직업이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하여 종사하는 것(표준국어대사전)'이다. 사전적 의미의 직업적 특성은 개인 또는 집단의 적성과 능력 그리고 종사한 기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고상백 외(2004)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무기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이직, 실직, 직무요구도, 사회적 지지, 직업불안성 등을 비교하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내용을 고찰하여 비정규직의 건강문제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박재홍·박은준(2012)은 미용서비스업의 직업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경력, 이직횟수, 이직 이유, 현 직장 근무기간, 외부교육기관 등을 조사하였고, 임파워먼트⁹⁾ 활성화와 이직률 감소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명화·최수일

9) 힘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의미가 많이 달라지지만 임파워먼트는 능력과 의욕 그리고 권한과 책임을 주는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박재홍·박은준, 2012)

〈표 4〉 직업 특성의 의미와 조사·분석 요소

저자 (연도)	분석 대상	조사와 분석 요소
고상백 외 (2004)	조선업종 근로자	근무기간, 주당 평균 노동시간, 이직, 실직, 직무요구도, 직무자율성, 사회적지지, 직업불안성 등
박재홍·박은준 (2012)	미용서비스업 중간관리자	경력, 이직횟수, 이직이유, 현 직장 근무기간, 일주일 평균 근무일, 희망하는 일주일 평균 근무일, 하루 평균 근무시간, 외부교육기관 등
최명화·최수일 (2012)	반월·시화공단 근로자	직업만족, 직업몰입

직업적 특성은 특정 직업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직업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2012)은 직업만족과 직업몰입이라는 변인을 설정하여 반월·시화공단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고, 근무 여건이 열악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노후 복지를 개선하는 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직업 특성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연구별로 분석 항목과 내용을 설정해 특정 직업군의 근무 여건 개선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파악한 직업적 특성이란 특정 직업의 성격을 규명하거나 직업별로 나타나는 현상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마을활동가의 활동 여건 개선에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경제적 활동 여건과 직업 분류 그리고 활동 지속 여부를 크게 세 가지를 분석 항목으로 설정하여 마을활동가의 직업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한 연구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는 데 활용되는 도구 가운데 직업분류가 있다. 여기서 직업분류는 경제활동을 위해 개인이 하고 있는 일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 당시 내무부 통

계국 국제조사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통계청, 2017).

직업분류체계로는 한국표준직업분류와 한국고용직업분류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한국고용직업분류는 엄격히 말해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속한 특수 목적분류에 해당하므로 국제표준과의 연계성을 가진 우리나라 직업분류의 대표는 직능수준을 중심으로 한 한국표준직업분류라고 할 수 있다(신은수 외, 2014).

신은수 외(2014)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여 유치원교사의 직업적 성격을 규명하고 유치원 교사의 전문성을 초등학교 교사, 보육교사와 비교·분석하여 직업적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안지연·이성은(2014)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항목에 새로운 분류 항목인 주부와 무직을 추가하여 직업 분류별 스트레스 상담, 우울증상, 의료기관 이용률 등을 분석하였다. 오현석·성은모(2010)는 국제표준직업분류와 한국표준직업분류의 전문직업분류를 비교하여 직업이 세분화되고 서로 다른 영역이 융합된 새로운 전문직이 창출되기 때문에 전문 인적 자원의 양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한 연구들은 한국표준직업분류를 바탕으로 특정 직업의 전문성이나 직업군

〈표 5〉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한 연구의 분석 대상과 내용

저자 (연도)	분석 대상	분석 내용
신은수 외 (2014)	유치원교사,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유치원교사의 직업적 성격 규명, 전문성 분석
안지연·이성은 (2014)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직업분류별 스트레스·우울 증상, 의료기관 이용률
오현석·성은모 (2010)	한국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직업분류	직업분류의 흐름, 전문 인 적자원 육성 정책

한국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하여 특정 직업의 전문성이나 직업군별 특성을 파악함

별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직업분류의 흐름을 분석하여 전문 인적자원 관련 정책 관련 시사점을 도출한 연구도 있다. 이 연구는 마을활동가가 어떤 직업군으로 분류되고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표준직업분류를 활용하였다.

III. 분석의 틀

1. 분석 대상 선정과 자료구축 과정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하는 역할과 집단의 범위가 명확한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 가운데 9개 활동 유형으로, 총 15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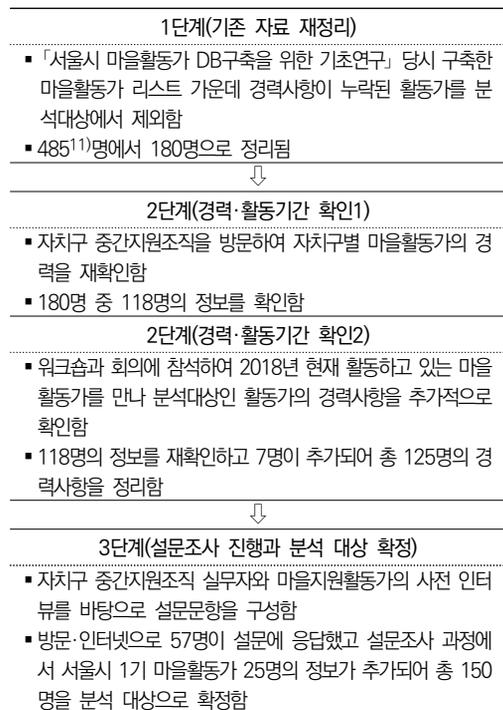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의 활동 유형별 역할은 기본계획과 서울혁신기획관의 연도별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 서울시의 광역형 중간지원조직인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에서 발간한 보고서와 자료집과 공고로 파악하였다(〈표 6〉 참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는 「서울시 마을활동가 DB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¹⁰⁾에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구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중간지원조직 실무자와 마을지원활동가의 도움을 받고 설문 조사를 활용해 구축하였다. 분석 자료구축 과정을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표 6〉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의 활동 유형과 역할

활동 유형	역할
마을강사	공동체의 필요성, 마을 만들기 사례분석 등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를 교육함
마을기업 인큐베이터	마을기업을 준비하는 주민에게 수준·단계별 지원 정책을 안내하고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함
마을길잡이	지역주민이 원하는 마을활동을 발굴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에 반영함
마을상담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개념, 사례,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지원사업에 관련 이해가 부족하거나 사업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상담함
마을 지원활동가	마을상담원, 마을강사 등을 통합한 명칭으로 마을공동체 사업 상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의 활동을 지원함
마을 컨설턴트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마을사업자가 사업 실행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언과 교육 등을 지원함
마을 학교PD	마을학교 상근 간사로 마을교육활동을 설계하고 진행함
촉진자	주민 간 연계, 네트워크 확장이 가능하도록 이웃간 계망 형성을 촉진함
현장조사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마을 현장조사를 진행함

〈그림 1〉 마을활동가의 직업 특성 분석을 위한 자료구축 과정



10) '2016년 서울시립대학교 시정연구 지원사업'에서 선정된 9개 연구과제 중 「서울시 마을활동가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연구자가 각각 연구원과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했다.

2. 분석 항목과 방법

이 연구의 분석 항목은 직업특성을 분석한 연구와 사전적 의미를 참고하여 크게 경제적 활동 여건과 직업분류 그리고 활동 지속 여부로 설정하였다. 일반 현황과 활동 지속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에는 분석 대상 가운데 57명이 응답하였다.

〈표 7〉 설문에 응답한 마을활동가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성	8	14.0
	여성	49	86.0
연령	20대	1	1.8
	30대	5	8.9
	40대	35	62.5
	50대	14	25.0
	60대	1	1.8
활동 시작 연도	2004년	1	1.8
	2011년	1	1.8
	2012년	16	28.1
	2013년	4	7.0
	2014년	11	19.3
	2015년	9	15.8
	2016년	15	26.3
근속연수	1년	16	28.1
	2년	14	24.6
	3년	13	22.8
	4년	4	7.0
	5년	10	17.5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경제적 활동 여건은 마을활동가의 수입과 근로 시간을 파악한 것이다. 수입은 연봉으로 환산하여 국세청에서 조사한 근로소득자의 평균과 비교하였다.

직업분류는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기 전 경력사항과 활동 당시 유형의 역할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를 분류하고, 마을활동가의 전직과 현직의 연관성을 파악한 항목이다. 마을활동가의 전직과 현직은 각각 경력사항과 활동 당시 유형의 역할을 한국 표준직업분류 해설서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다. 분류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을 극복하기 위해 경력사항과 활동 당시 유형의 역할이 해설서에 명시된 직업별 설명 또는 색인어와 일치하는 경우¹²⁾에만 분류하였다. 경력 사항이 ‘사업운영 경험 유’, ‘생협협동조합에서 활동했음’과 같이 구체적 직책과 경력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직업분류 기준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최신 개정판, 통계청 고시 제2017-191호)를 활용한 이유는 직업분류체계를 활용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우리나라의 대표적 직업분류체계이기 때문이다.

활동 지속 여부 항목은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평균 근속연수와 활동 지속 동기 그리고 중단 이유에 관한 내용이다. 활동 지속 여부별 평균 근속연수는 ANOVA 분석(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결과를 검정하였다. 활동 지속 동기는 ‘지역 애착도’와 ‘이웃과의 관계 형성·확대’ 등 6개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7점 리커트 타입 척도로 측정하였고 활동 지속 의향도 설문하였다. 활동 중단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의 반대’ 등 8개 설문

11) 「마을의 시작 서울의 변화」(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7)에서 정리한 마을지원활동가는 2016년 기준 407명으로, 2012년부터 누적된 인원이다. 마을활동가 관련 자료의 통합 관리 시스템이 미흡하기 때문에 485명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12) 예를 들어, 어떤 마을활동가의 경력사항이 ‘시민사회단체 000 간사’인 경우에는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의 ‘시민 단체 활동가’ 색인어 가운데 ‘사회단체간사’와 일치하기 때문에 시민 단체 활동가로 분류된다. 경력사항이 ‘OO복지원 사회복지사’이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회복지사’에 관한 설명과 색인어에 따라 사회복지사로 분류된다.

문항이다. 활동 지속 동기와 동일하게 7점 리커트 타입 척도로 구성하였다.

활동 지속 동기와 중단 이유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증된 값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는 IBM SPSS statics 25를 활용하였다.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의 항목과 방법을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 항목과 방법

분석 항목		분석 대상*	분석 방법	비고
경제적 활동 여건		43명	빈도분석	설문조사 결과
직업 분류	전직	125명	경력 사항을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에 따라 분류	연구자의 주관을 배제하기 위해 분류 과정과 결과를 동료 연구원과 마을활동가들에게 공유하고 의논함
	현직	150명	활동 유형을 한국표준직업분류 해설서에 따라 분류	
활동 지속 여부	활동 지속 여부별 근속연수	121명	평균비교 (ANOVA분석)	-
	활동 지속 동기	57명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실시해 정제된 값을 해석	설문조사 결과
	활동 중단 이유			

* 전체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 150명을 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였고 설문조사에는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57명이 응답함

IV. 분석 결과

1. 마을활동가의 경제적 활동 여건

마을활동가가 마을활동으로 얻는 수입과 마을 활동을 하는 시간은 월급과 월간 근로시간으로 환산해볼 수 있다. 마을활동가의 월급은 평균 69만 7천원이고 근로시간은 평균 80시간 42분으로 나타났다.

마을활동가의 평균 월급은 2018년에 개정된 「2018년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집행기준」(서울혁신기획관)에 따른 최대 일반 활동비 지급액인 월간 60만 원¹³⁾과 비슷하다. 시급으로 계산해보면 약 8,600원으로 2018년도 최저임금액인 7,530원보다 천 원가량 많다. 하지만 활동비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기간인 1년 중에 약 9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활동비를 1년 내내 받는다고 가정할 때 마을활동가의 평균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836만 4천 원이다. 이를 2017년도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인 3,519만 원(국세청, 2018)¹⁴⁾과 비교해보면 마을활동가는 근로소득자 평균 급여의 1/4 정도를 받는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월급 항목에 응답한 43명¹⁵⁾ 가운데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으며 활동한 마을활동가가 81.4%(35명)다.

따라서 어젠다 연구가 제시한 내용처럼 마을활동가에 관한 경제적 보상체계가 매우 미비하여 마을활동만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활동 여건을 마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13) 2018년부터 서울시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대표제인자를 포함한 실무책임자 중 1인에 한해 일반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 근거를 마련했지만 시간당 1만 원 이내,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60만 원이다.

14) 국세청에서 발간한 「2018년 국세통계연보」를 의미한다.

15) 전체 설문응답자 57명 가운데 43명이 월급 항목에 응답했다.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은 작성하기가 조심스럽다'다.

〈표 9〉 마을활동가의 월급과 월간 근로시간

구분		인도수(명)	구성비율(%)*
월급	0~50만 원	25	58.1
	51~100만 원	10	23.3
	101~200만 원	6	14.0
	201~300만 원	1	2.3
	301~400만 원	1	2.3
월간 근로시간	50시간 이하	19	47.5
	51~100시간	6	15.0
	101~200시간	13	32.5
	201시간 이상	2	5.0

*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2. 마을활동가의 직업분류

1) 마을활동가의 경력별 직업분류: 전직(前職)

마을활동가의 경력별 직업분류는 마을활동 이전 경력사항을 바탕으로 마을활동가를 분류한 결과다. 마을활동가의 전직에 해당한다. 분류의 기준이 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분류 단계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로 다섯 단계다. 구축한 마을활동가의 경력 자료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를 공통적으로 세분류까지 분류했고, 일부는 세세분류까지 분류할 수 있었다. 마을활동가의 마을활동 이전 경력을 바탕으로 한 직업분류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마을활동가의 마을활동 이전 경력별 직업분류: 전직(前職)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분류 항목	인원*	분류 항목	인원	분류 항목	인원	분류 항목	인원		
관리자	34	전문 서비스 관리직	34	연구·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4	연구 관리자	2		
				교육 관리자	2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22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22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8	문화·예술 관련 관리자	8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09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2	건축·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	도시 및 교통 관련 전문가	2		
				간호사	2	간호사	2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94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91	사회복지사	6	사회복지사	6
						상담 전문가	2	상담 전문가	2
						시민 단체 활동가	83	시민 단체 활동가	83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10	종교 관련 종사자	1	성직자	1	성직자	1
						대학 교수 및 강사	3	대학 교수	1
						대학 시간 강사	2	대학 시간 강사	2
						학교 교사	1	중·고등학교 교사	1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2	인사 및 경영 전문가	1	경영 및 진단 전문가	1	경영 및 진단 전문가	1
						감정·기술 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1	부동산 컨설턴트 및 중개사	1
작가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					기자 및 언론 관련 전문가	1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1		
				기타 교육 전문가	3	기타 교육 전문가	2		
				행정 사무원	1	국가 및 지방 행정 사무원	1		
				경영 관련 사무원	16	총무 사무원 및 대학 행정조교	16		
사무 종사자	19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18	회계 및 경리 사무원	1	경리 사무원	1		
				법률 및 감사 사무직	1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1		
				법률 및 감사 사무 종사자	1	감사 사무원	1		
판매 종사자	1	영업직	1	영업 종사자	1	보험 모집인 및 투자 권유 대행인	1		

*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유형의 활동을 한 마을활동가가 중복되어 인원 합계는 163명임

대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마을활동가는 ‘관리자’, ‘전문가·관련 종사자’, ‘사무 종사자’, ‘판매 종사자’ 직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다. 전문가·관련 종사자 직종에 해당하는 활동가가 109명으로 가장 많고 관리자 직종은 34명이다. 사무 종사자 직종은 19명이고 판매 종사자 직종이 1명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를 기준으로 보면 ‘전문 서비스 관리직’과 ‘공학 전문가·기술직’ 등 총 9개 직종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경력을 가진 활동가가 94명으로 가장 많다. ‘전문 서비스 관리직’ 경력이 있는 활동가는 34명이고 ‘경영·회계 관련 사무직’은 18명이다.

소분류 결과를 보면,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직종이 91명으로 대부분이다. ‘보건·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직종이 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분류 결과를 보면,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가 ‘시민 단체 활동가’와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그리고 ‘총무 사무원·대학 행정조교’ 직종 순으로 종사한 경력이 많다.

세세분류 결과를 보면, ‘시민 단체 활동가’ 경력이 있는 활동가가 전체 활동가 125명 가운데 83명(66.4%)으로 가장 많다. 시민 단체 활동가는 주로 ‘간사’로 불리며 복지와 주택 등 사회문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또는 봉사단체 혹은 시민단체에서 사회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경력별 직업분류로 살펴본 마을활동가는 절반 이상이 마을활동가로 활동하기 전부터 사회문제 해결하려는 노력을 했다.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는 세분류를 기준으로 24개 직종의 경력을 갖춘 인적자원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2) 마을활동가의 활동 유형별 직업분류: 현직(現職)

마을활동가의 활동 유형별 직업분류는 마을활

동가로 활동했던 당시의 활동 유형을 직업분류한 결과다. 마을활동가의 현직에 해당한다. 한국표준 직업분류에 따라 마을활동가의 현직을 파악하면 분석 대상인 마을활동가는 대분류 기준으로 ‘전문가·관련 종사자’ 직종이다. 마을활동가의 현직을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전문가·관련 종사자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가장 높은 직무능력 수준인 3, 4 직능수준을 갖춘 직종이고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통계청, 2017)’이다.

마을활동가에게 해당 분야는 주민 간 관계를 회복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시는 조례¹⁶⁾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표 11> 마을활동가의 활동 유형별 직업분류: 현직(現職)

항목	내용			
대분류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중분류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소분류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기타 교육 전문가	인사 및 경영 전문가	상품 기획·홍보 및 조사 전문가
세분류	시민 단체 활동가	장학관·연구관 및 교육 관련 전문가	경영 및 진단 전문가	조사 전문가
마을활동가 활동 유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큐베이터 ▪ 길잡이 ▪ 상담원 ▪ 자원활동가 ▪ 컨설턴트 ▪ 학교PD ▪ 촉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 자원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큐베이터 ▪ 지원 활동가 	현장조사원

주: 마을활동가 활동 유형별 명칭에서 마을, 기업을 생략하고 표에 기입함

높이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활동 유형별 직업분류에 따라 분석한 마을활동가는 마을활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수행하는 직종으로 파악된다. 또한 분석 결과, 마을활동가는 마을이라는 공간적 범위에서 시민 단체 활동가, 장학관·연구관·교육 관련 전문가, 경영·진단 전문가, 조사 전문가의 역할¹⁷⁾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

1)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분류

연구의 시간적 범위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활동한 마을활동가의 근속연수는 최소 1년에서 최대 5년이다. 마을활동가의 근속연수별 인원을 정리하면 <표 12>와 같다.

마을활동가의 평균 근속연수¹⁸⁾는 약 2.7년으로 파악되었다. 1년 동안 활동한 활동가가 57명으로 가장 많았고, 4년 동안 활동한 활동가는 10명으로 가장 적었다. 근속연수가 2년 이하인 마을활동가

<표 12> 마을활동가의 근속연수별 인원

근속연수	1년	2년	3년	4년	5년
인원	57명	40명	27명	10명	16명

는 97명으로 전체의 약 64.7%를 차지한다.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는 평균적으로 1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전체 기간인 5년 가운데 약 절반 정도의 기간 동안 활동했다. 5년 동안 활동한 인원은 약 10.7%(16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을활동가를 활동 지속 여부별로 분류하면 <표 13>의 내용처럼 중단 없이 활동을 연속한 경우와 활동을 중단 했다가 재개한 경우, 그리고 활동을 중단한 경우와 같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활동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마을활동가를 분류하면 <표 14>과 같다.

<표 13>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분류 항목 설명

분류 항목	분류 항목별 내용
활동 연속	2016년을 기준으로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이면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없는 경우
활동 재개	2016년을 기준으로 활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다시 시작하여 근속연수가 2년 이상인 경우
활동 중단	2016년을 기준으로 활동을 재개하지 않고 중단한 경우

<표 14>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분류

분류 항목	평균 근속연수	인원
활동 연속	3.2414년	58명
활동 재개	2.8333년	18명
활동 중단	1.6000년	45명

주: 전체 분석 대상인 150명 가운데 2016년도에만 활동한 29명은 활동 지속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분류에서 제외함.

16)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2012년에 제정되어 2016년에 일부개정 되었다.

17) 통계청(2017)에 따르면, '장학관·연구관·교육 관련 전문가'는 학교를 주기적으로 시찰하고 행정기관·교사와 협의하며 교과과정, 교육방법, 기타 교육 실무에 관하여 연구하고 필요한 변화와 개선을 추진한다. '경영·진단 전문가'는 경영과 관련된 개선점을 제안하고 계획하며 실행하기 위해 운영, 경영방법이나 조직의 기능을 분석하는 것과 같은 서비스와 자문을 제공한다. '조사 전문가'는 통계학, 사회학, 심리학 등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기업의 마케팅 의사결정이나 공공영역의 정책수립, 학술연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조사를 설계·기획하고 자료수집 과정 전반을 관리한다.

18) 마을활동가의 평균 근속연수는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근속연수를 파악할 수 있는 125명의 마을활동가의 활동 기간을 모두 더한 값을 활동가 인원인 125로 나눈 값이다.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평균 근속연수는 활동을 연속한 유형의 평균 근속연수가 약 3.2년으로 가장 길게 나타났다. 활동을 재개한 경우의 평균 근속연수는 약 2.8년이다. 활동 중단 유형의 평균 근속연수는 1.6년으로 활동 연속 유형에 비해 절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을활동을 재개한 유형과 중단한 유형을 살펴보면 63명이 활동 중단 경험이 있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활동을 재개하는 비율은 약 14.9%(18명)로 나타났다. 마을활동을 아예 중단하는 마을활동가는 전체 분석 대상의 약 37.2%(45명)로 파악되었다. 마을활동가 3명이 활동을 시작하면 1명은 활동을 중단하고, 다시 활동하는 경우는 10명 가운데 2명이 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마을활동가를 새로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활동을 계속하는 활동가가 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보다 2배 정도 오래 활동하고, 활동 재개 비율이 약 14.9%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가 활동을 아예 중단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15〉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여부별 근속연수 평균 비교 (ANOVA 분석)

활동 지속 여부	평균 근속연수	표준 편차	F값 / 유의확률	사후검증 결과
활동 연속	3.2414년(a)	1.24690	47.727 / 0.000*	a>c (Dunnett T3 검증)
활동 재개	2.8333년(b)	0.78591		
활동 중단	1.6000년(c)	0.83666		

*p < 0.05

2)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동기와 중단 이유

설문조사에 응답한 활동가 57명 가운데 마을활동을 중단 없이 연속한 활동가 39명과 마을활동을 재개한 활동가 10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동기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마을활동가는 크게 개인과 이웃 측면에서 활동 지속 동기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적 측면의 활동 지속 동기는 마을활동가로서 느끼는 자긍심과 마을활동으로 얻는 개인의 성장이다. 이웃 측면에서 얻는 활동 지속 동기는 마을에서 맺는 이웃관계의 형성·확대와 활동하는 지역에 느끼는 애착이다.

마을활동가의 마을활동 지속 의향은 전체 응답자 57명 가운데 49명(약 86.0%)이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응답하였다.

〈표 16〉 활동 지속 동기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명	설문 항목		공통성	성분			신뢰도		
	문항 개수	설문 문항		1	2	3	Alpha if item Deleted	Cronbach α	
개인	2	마을활동가로서의 자긍심	.852	.884			.831		
		활동가 개인의 성장	.882	.876					
가족	1	가족의 응원	.989			.958			
이웃	2	이웃과의 관계 형성·확대	.813	.747			.786		
		지역 애착	.910	.924					
Kaiser-Meyer-Olkin 측도						0.69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근사 카이제곱			95.321
						자유도			10
						유의확률			.000

〈표 17〉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동기

활동 지속 동기	설문 항목			영향을 주는 정도 (리커트 7점 척도 평균)
	문항 유형	문항 그룹	문항 개수	
활동 지속 동기	개인	2	마을활동가로서의 자긍심	6.0612점
			활동가 개인의 성장	6.1429점
	이웃	3	이웃과의 관계 형성·확대	6.3061점
			지역 애착	6.3061점

마을활동가의 활동 중단 이유는 마을활동을 중단했다가 재개한 활동가 10명과 2018년 현재를 기준으로 활동을 중단한 상태인 활동가 8명의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마을활동가의 활동 중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크게 인간관계와 사회·제도 요인으로 나타났다. 인간관계 요인은 가족과 이웃주민 그리고 다른 활동가와의 관계를 포함한다. 사회·제도

요인에는 경제적 부분과 행정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고, 정보 수집·공유의 어려움도 있다.

V. 논의와 결론

1. 논의

직업분류체계로 분류되는 직업을 공식 직업이라고 할 때, 마을활동가도 공식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을까?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르면, 직업은 계속성·경제성·윤리성·사회성을 충족하는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다. 먼저, 계속성은 ‘주기적으로 행하는 것,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의지와 가능성이 있는 것’(통계청, 2017)이다. 마을활동가는 2012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같은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속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설문 결과,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의향이 약 86.0%라는 점도 계속성이 충족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이다.

윤리성과 사회성은 ‘윤리적인 영리행위나 사회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마을활동가가 공익을 추구하고 지역 애착과 이웃과의 관계 형성에서 느끼는 보람 덕분에 활동을 지속한다는 점에서 윤리성과 사회성을 충족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경제성은 ‘경제적 거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을 의미한다. 마을활동가는 인건비를 받기도 하지만 무급 봉사 활동처럼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경제성이 충족되지 않는 마을활동가도 있다. 서울시 마을활동가도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시행 전부터 지역에서 공익을 위해 무급 봉사하던 마을활동가가 존재한다.

〈표 18〉 활동 중단 이유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

요인명	설문 항목		공통성	성분		신뢰도	
	문항 개수	설문 문항		1	2	Alpha if Deleted	Cronbach's α
인간관계	3	가족의 반대	.721	.702	.565	.733	
		이웃주민과의 갈등	.758	.742	.501		
		다른 활동가와의 갈등	.744	.851	.852		
사회·제도	3	경제적인 어려움	.510	.684	.658	.704	
		행정 절차 상의 어려움	.744	.862	.600		
		정보 수집·공유의 어려움	.593	.756	.591		
Kaiser-Meyer-Olkin 측도				0.690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근사 카이제곱				61.084		
	자유도				15		
	유의확률				.000		

〈표 19〉 마을활동가의 활동 중단 이유

활동 중단 이유	설문 항목			영향을 주는 정도 (리커트 7점 척도 평균)
	문항 유형	문항 그룹	문항 개수	
인간관계	4	인간관계	가족의 반대	3.6970
			이웃주민과의 갈등	3.9091
			다른 활동가와의 갈등	4.3939
	4	사회·제도	경제적 어려움	4.8182
			행정 절차상 어려움	4.5455
			정보 수집·공유의 어려움	4.2727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마을활동가는 직업으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네 가지 요소 가운데 계속성·윤리성·사회성이 충족되는 집단이지만 경제성은 충족하지 않는 활동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마을활동가가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정의하는 직업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경제성이 충족되는 활동 유형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수단으로 '마을활동가 인증제'가 있다. 마을활동가 인증제는 사회적 합의로 전문적 활동을 하는 마을활동가의 자격과 역할의 범위를 설정하는 방안으로 부산시와 일본 기후현 등 국내외에서 시행되고 있다. 인증제도 도입 시 인증을 받은 마을활동가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 해주어야 하고, 다양한 참여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정석 외, 2017). 이 연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는 '마을활동가 인증제에 관한 마을활동가의 인식' 문항도 있었고 응답 결과는 <표 21>과 같다.

설문에 응답한 마을활동가의 약 61.4%가 인증제를 알고 있었고 인증제 도입을 찬성하는 활동가가 55.1%, 반대가 40.8%로 확인됐다. 인증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는 '마을활동가로 활동한 경력에 관한 공식 인증과 대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찬성 이유를 자세히 보면 '정규직이 아니라서 직장을 잡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어떤 활동가든 경력은 중요하다', '각종 교육 참석과 활동 이력 관련 인증이 필요하다', '마을활동가가 전문화 또는 체계화되려면 퍼실리테이터와 조직가 등 전문영역을 거쳐 정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등의 의견이 있다. 인증제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마을활동가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으로 정리할 수 있다. 반대 이유를 좀 더 살펴보면, '마을에서는 관계가 인증이다', '사람에겐 인증이 아니라 인정이 필요하다', '아직 현장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음',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풀뿌리 활동가들을 배려하지 않는 정책이다', '활동을 인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현재부터 시행한다면 과거 마을활동을 증명하는 자료를 찾기 어렵다' 등으로 응답했다.

따라서 마을활동가가 공식 직업으로 분류되기 위한 수단으로 마을활동가 인증제가 있지만, 마을활동가 인증제는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마을활동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 여부·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합의해야 한다.

<표 20> 마을활동가의 직업 요소 충족 여부

직업 요소	충족 여부	판단 근거
계속성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처럼 마을활동가가 참여하는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이 주기적으로 행해지고 있고 마을활동가의 활동 지속 의향이 약 86.0%임
윤리성, 사회성	○	마을활동가는 지역 내에서 공익을 추구하며 이웃관계망 형성과 같은 사회적 기여를 함
경제성	△	마을활동가에는 경제적 거래 관계에 부합되는 유형도 있지만 무급 봉사자도 있음

○: 충족함
△: 충족하는 활동가와 충족하지 않는 활동가가 있음

<표 21> 마을활동가 인증제에 관한 인식조사

인증제를 알고 있는지		인증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다	몰랐다	찬성	반대	관심 없음
35명 (61.4%)	22명 (38.6%)	27명 (55.1%)	20명 (40.8%)	2명 (4.1%)

주: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표기함

2. 결론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은 마을활동가의 지속적인 활동 보장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우선적으

로 파악되어야 한다. 활동 여건과 활동 지속 동기 등이 포함된 개념인 직업적 특성이 파악되어야 마을활동가에게 알맞은 활동 지속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을 파악하려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가운데 150명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직업분류와 활동 지속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했다. 활동 여건과 활동 지속 동기 그리고 중단 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에는 분석 대상 가운데 57명이 응답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분석대상인 마을활동가는 마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참여주체 간 의사소통을 위한 능력을 갖춘 마을분야의 전문가 집단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직무능력 수준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제3, 4 직무능력 수준에 해당한다. 둘째, 전체 분석 대상의 약 52.1%가 활동 중단 경험이 있다. 전체 분석 대상 가운데 활동을 재개하는 비율은 약 14.9%로 나타났고, 아예 중단하는 경우도 약 37.2%로 파악되었다. 셋째, 설문 조사에 응답한 마을활동가는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면서 얻는 보람 덕분에 활동을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활동 중단 이유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경제적인 힘들, 그리고 사회·제도적 부분에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응답했다. 넷째, 설문조사로 파악한 마을활동가의 평균 연봉은 836만 4천 원이다. 이는 2017년도 근로소득자의 평균 급여인 3,360만 원의 약 1/4 수준이다.

마을활동가의 직업 특성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제3, 4 직무능력 수준을 갖춘 마을분야의 전문가이다. 또한 경제적으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연속 비율이 절반 정도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 추진 시 마을활동가의 직무 능력 수준에 걸맞은 경제적 대우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마을활동가에게 알맞은 활동 지속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마을활동가는 직업의 요소 가운데 경제성이 충족된다면 공식 직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 충족을 위한 수단으로 특정 마을활동가의 범위를 설정하는 마을활동가 인증제가 있다. 마을활동가 인증제의 도입 여부와 운영 사항은 마을활동가와 주민 등 마을공동체에 참여하는 주체의 의견이 수렴된 합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는 서울시 1기 마을활동가 가운데 아홉 가지 활동 유형을 분석했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를 마을활동가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 2기 마을공동체 정책 가운데 '필수 활동가의 지속가능한 활동 보장'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마을활동가의 직업적 특성을 분석했다는 것에 연구의 가치가 있다. 앞으로 마을활동가의 활동 여건 개선하려는 논의가 진전되고, 실제 활동 여건이 개선되는 데 이 연구가 작은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

참고문헌

- 고상백·손미아·공정옥·이철갑·장세진·차봉석, 2004,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직업적 특성과 사회심리적 스트레스", 『대한산업의학회지』, 16(1), 대한산업의학회.
- 국세청, 2018, 『2018년 국세통계연보』.
- 김홍주, 2014, "마을 만들기 활동가들은 누구인가?", 『한국지역개발학회 세미나 논문집』, 한국지역개발학회 2014년 추계학술대회 발표집: 175~185, 한국지역

- 개발학회.
- 박세훈·임상연, 2014, 「도시재생 중간지원조직 연구 : 정부-시민사회 관계의 관점에서」, 국토연구원.
- 박재홍·박은준, 2012, “미용서비스업 중간관리자의 직업적 특성에 따른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0(3), 대한피부미용학회.
- 서울시, 2012,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2013,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2013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성과 자료집」.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6851호).
- 손우정·김수경·나도삼, 2015, 「새로운 서울 마을공동체 정책수립을 위한 어젠다 연구」,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서울연구원.
- 신은수·안부금·이선명, 2014, 「표준직업분류(ISCO, KSCO)에 의한 유치원교사와 초등학교교사, 보육교사 직업 비교 분석」, 「유아 교육학논집」, 18(5): 127~152, 한국영유아교원교육학회(구 중앙유아교육학회).
- 안현찬·박소현, 2012, “마을 만들기의 관점에서 본 주민자치위원회의 특성 분석: 서울시 마포구 성산1동 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28(2): 149~158, 대한건축학회.
- 안현찬·구아영,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성과평가와 정책과제」, 서울연구원.
- 오현석·성은모, 2010, “전문직종의 변화에 따른 전문가 사회의 특성 및 동향 분석”, 「직업교육연구」, 29(2), 한국직업교육학회지.
- 윤혜영, 2015, 「인천광역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기반인력 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인천발전연구원.
- 정석·김택규, 2015, “국내 ‘마을 만들기’ 연구동향과 ‘사람’에 중점을 둔 연구의 특성 분석”, 「한국도시설계학회지」, 7(3): 123~138, 한국도시설계학회.
- 정석·김정환·김동민·신동훈·홍우영, 2017, 「서울시 마을활동가 DB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시립대학교.
- 최명화·최수일, 2012, “근로자의 개인적·직업적 특성과 노후준비와의 관계 : 반월·시화공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2(6), 한국콘텐츠학회.
- 지혜연, 2017, “서울시 마을공동체사업에 참여한 마을활동가 역량 수준 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 석사학위 논문.
- 최우혁, 2017,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주체별 역할 중요도 분석을 통한 수법 개발”, 부산대학교 도시공학 박사학위 논문.
- 최희영·이희정, 2014, “주민참여 마을 만들기에서 여성의 참여와 역할에 관한 연구: 서울시 성대골마을과 삼각산 재미난 마을 마을공동체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9(6), 대한민국도·도시계획학회.
- 통계청, 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 황규홍, 2016, “마을 만들기 활동가의 역할정체성에 관한 연구”, 「성인계속교육연구」, 7(1): 25~46, 한국성인계속교육학회.

원 고 접 수 일 : 2018년 5월 4일
1 차 심 사 완 료 일 : 2018년 7월 10일
2 차 심 사 완 료 일 : 2019년 3월 25일
최 종 원 고 채 택 일 : 2019년 3월 29일

